

출장 보고서

□ 출장개요

1. 출 장 명: OECD 제7차 농촌개발회의 참석
2. 목 적: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농촌정책 담당자들간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경협
 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
3. 출장국가: 캐나다 퀘벡
4. 출장기간: 2009.10.12(월) - 10.19일(월)
5. 출 장 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마상진
6. 출장일정

일자	일정	방문기관 및 지역
10월 12일	서울 → 퀘벡	이동
10월 13일	<Conference> Session 1: Responding to the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in Rural Area	Quebec City Convention Center
10월 14일	Session 2: Relaunching devitalized Area and Single Industry Towns Session 3: Rural tourism: implementing “cutting edge” schemes Session 4: Reimagining the forests: potential for forest-based rural development Session 5: New sources of energy production and transmission Session 6: Rethinking the new demography of rural communities Session 7: Climate change: policy implications in rural areas Session 8: Strategies to enhance the local food industry	
	Session 9: Local government and declining fiscal capacity: adjustment mechanisms Session 10: Identifying appropriate responses for rural development policy: a roundtable discussion	
	<Field Visits> TOUR 1: Local revitalisation, rural tourism and demography (North of the St. Lawrence River The Capitale-Nationale, Mauricie and Lanaudière regions)	
	TOUR 2: Culture tourism and socioeconomic revival (South of the St. Lawrence River, The Chaudière-Appalaches, Estrie and Montréal regions)	
10월 15일	TOUR 3: Agrifood system, farm tourism and rural initiatives(South shore of the St. Lawrence River, Chaudière-Appalaches, Centre-du-Québec, Estrie and Montréal regions)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퀘벡 → 서울	이동
10월 19일		

□ OECD 농촌개발회의 의제와 시사점

-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2009. 10. 13~10. 15.) 제7차 OECD 농촌개발회의(OECD Annual Rural Development Conference)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농촌지역 사회의 대응, 농촌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요인(농촌관광, 임업자원, 바이오 에너지, 지역 농산물 생산 소비),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농촌개발의 대응 등의 현안에 대하여 농촌개발 관련 주요 전문가 발표, 각국 사례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방안을 제시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주요 현안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농촌을 기반으로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융위기와 더불어 재정자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위기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농촌을 기반으로한 지자체는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천연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과 관련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발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기술과 리더십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② 다양한 수준의 정부, 민간기구, 비영리기구, 시민사회 등 지역개발 관련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공정하면서도 다층적 협치적 접근(equitable multi-level governance approach)이 필요하다. ③ 이러한 현재의 위기를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과 재정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농업 등 특정 산업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를 향한 비전 공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혁신 추구 등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농촌의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농촌관광, 임업자원, 바이오에너지, 지역농산물 생산 소비(local food) 등 농촌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농촌지역의 소득과 고용기회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업자원, 새로운 에너지 자원,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농촌관광 등을 어떻게 농촌의 새

로운 발전 기폭제로 활용할 것인가? 먼저 ① 앞으로 농촌개발전략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활용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② 그러한 농촌개발은 우선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것이어야 하고, 지역(place-based)을 기반으로 해야하고,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local value)와 통합되어야 한다. ③ 농촌과 도시, 공공과 민간, 공공과 공공 등 주요 당사자간의 지식 공유와 참여의 메카니즘을 창출해야 한다.

- 농촌개발에 있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화된 인구, 젊은 인구의 유출, 새로운 농촌거주자의 등장, 이민자 증가, 이민자들 출신국가와의 관계 등. 이러한 요인은 농촌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① 인구구조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규범적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인내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는 기존 지역주민의 관심사를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유입자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지역사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③ 기존 지역주민들이 인구구조의 역동적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상급 정부(higher level government)의 정보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지역사회 전환(community transition)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지역은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다른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농촌개발에 있어 이러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①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제고에 힘써야 한다. ② 소규모 에너지 생산과 같은 새로운 이익 창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③ 극단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건을 대응하는 올바른 공간 계획(spatial planning)을 찾아야 한다.
- 현재의 금융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을 위해 사용해오던 방식들을 수정하여 경제 활동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

어 좀 더 많은 지역의 참여 속에서 위기 대처능력이 있고, 인간 친화적인 경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농촌을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탄소사용의 감축, 홍수와 가뭄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받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농업과 농촌관광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농촌개발은 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혁신 감각을 가진 사람의 참여,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임업자원, 바이오에너지와 지역복지 서비스 등 분야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체의 등장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농촌은 젊은 인구의 유출, 장거리를 통학하는 은퇴자와 젊은 귀농자의 유입 등을 통해 새로운 인구구조를 경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고, 젊은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민자와 같은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농촌 주민과 새로운 유입자들간의 협력(symbiosis)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Field Trips: 캐나다 퀘벡의 세인트로렌스강 북부지역 (North of the St. Lawrence River)

- 투어주제: 지역재생, 농촌관광, 인구유치(Local Revitalization, Rural Tourism, and Demography)

[10월 15일(목)]

- 포르네프(Portneuf) 지역개발공동체(Regional County Municipalities: RCM)
 - 애릭서(Aliksir) 농장 방문
 - 애릭서씨는 1973년 처음 이 지역에 정착한 후 1988년부터 오일 생산
 - 지역 대학과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허브 등 다양한 식물로부터 오일을 추출
 - 현재 에센셜 오일, 하이드로줄 형태의 상품을 전세계 수출
 - 리비에라빠에르(Riviere-a-Pierre) 자치주(Municipality) 개발 사례
 - 농식품 협동조합(Food coop)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농산물 판매
 - 마을 주요주체 모임
 -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원 다각화
 - 지역농산물 운동(Agri-Food in Portneuf)
 - 지역 브랜드 창출
 -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수립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10월 16일(금)]

- 마스키농제(Maskinonge) 지역개발공동체(RCM)

- 세인텔레드캅스통(Saint-Élie-de-Caxton) 자치주의 농촌관광 사례
 - 인구 1676명의 소 자치주이지만 2008년 개봉된 Babine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짐
 - 지역 출신의 Fred Pellerin이라는 작가에 의해 이 마을의 역사를 소재로 만들어짐
 - 영화와 접목된 농촌관광으로 매년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

- 세인텔렉시스테몽(Saint-Alexis-des-Monts)의 지역농산물(Local Food) 사례
 - Les bières de la Nouvelle-France는 지역의 농산물로 가공한 맥주로 유명함: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
 - 6종의 지역 브랜드 맥주와 이를 기반으로한 식당에 연간 3만명 이상 방문

- 세인텔렉시스테몽(Saint-Alexis-des-Monts)의 바이오에너지 사례
 - Biodiesel Québec inc 방문
 - 지역에 소재한 식당에서 수거한 폐식용류(Cooking oil), 커피찌꺼기 등으로 바이오에너지 제품을 생산
 - Biodiesel외에도 Bio-Chaine, Bio-mazout, Bio-Lub mc, Bio-Conditionneur, Bio-Dégivreur, Bio-Coffrage 등의 상품 생산

-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La Maison Familiale Rurale de la MRC de Maskinongé) 사례
 - 주교육부에서 인정한 중등 직업교육센터: 15-18세 사이의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함.
 -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보통학교와의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이 학교에서 2주씩 교환 프로그램 실시(학교 2주+ 센터 2주)
 - 지역사회의 목축업, 임업, 동물보호, 식품산업 등 다양한 직업현장의 체험하면서 교육을 실시
 - 보통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음.

- 세인트폴린(Saint-Paulin)에 위치한 바루촌 농촌관광지(the Auberge le Baluchon de Saint-Paulin) 방문
 - 환경친화 카페, 야외극장, 승마, 향토음식, 스파 등 친환경과 농촌체험을 겸비한 농촌관광지
 - 매년 3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10월 17일(토)]

- 줄리엣(Joliette) 지역개발공동체(MRC) 방문
 - 지역 고령 주민의 외지 이탈 방지, 그리고 인근 지역의 은퇴자 유치 사업 실시
 - 3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 공동체에서 실시한 다양한 사업 소개
 - 교통(Transportation): 대중교통서비스, 문앞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 주거관리(House Keeping & Management): 협동조합 활용, 주거서비스(House Service) 제공
 - 안전과 사회교류(Security / Social Network): 경찰과 각 가구 연결 (PAIR 프로그램), 이웃을 통한 감시(Neighborhood Watch), 친구 방문(Friend Visit), 비상버튼(Security Center), 전화자동응답 종합서비스(CLSC call)
 - 식사(repas) & 접근성(proximite): Food at home, 이동 부엌(Mobile Kitchen), 이동 슈퍼·약국·은행(Grocery, Pharmacy, Banking Service)
 - 집(Lodge): 생활이 편하고 작게 그리고 선택(option)이 가능하게 새로 지음, 세대간 집(intergeneration House)
 - 정보(Information): 서비스 제공자와의 집단면담(group meeting with service provider), 원스탑 서비스(One contact, One sheet)